금주의 법구–〈별약잡아함경〉
애욕보다 큰 것이 없고
분노보다 깊은 것이 없고
교만보다 높은 것이 없다.

현대불교

행복 더하는
현대불교 ARS 후원
060-700-1080

1994년 10월 15일 창간 주1회 발행 제1261호 구독신청 (02)2004-8212 hyunbulnews.com (불기 2563년 음력 8월 27일) 2019년 9월 25일 수요일

새 비구니회장 본각 스님 "마음 하나로" 화합 강조

조계종 제12대 전국비구니회장 당선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9월 18일 선거 1064표 얻어
1184명 투표, 역대 최다 인원
명망 높은 후보에 대중 관심
후보들 열띤 선거운동 영향도

조계종 제12대 전국비구니회장에 본각 스님〈사진〉이 당선됐다. 앞서 임기 내 승려복지 확대에 주력하면서 노스님들의 지지를 받은 현 회장 육문 스님과 30년간 교육자로서 후학양성을 하며 후배들의 지지를 받은 중앙승가대 명예교수 본각 스님의 각축전이 예상대로 펼쳐졌으나 근소한 차이로 본각 스님이 당선의 기쁨을 얻었다.

조계종 전국비구니회는 9월 18일 서울 일원동 전국비구니회관에서 제12대 회장 선출을 위한 임시총회를 열고, 직선제를 통해 제12대 회장으로 본각 스님을 선출했다. 본각 스님은 총 1880표 중 1064표를 얻어 789표를 얻은 경쟁후보 육문 스님을 제쳤다. 무효표 23표, 기권 3표. 회장 임기는 11월 1일부터 4년간이다.

이번 선거는 총 1910명이 선거인명부에 이름을 올려 전국비구니회가 2011년 직선제를 처음 시행한 이후 최다 인원을 기록했다. 2011년 제10대 회장 선거에는 1456명이 점명해 1366명이, 제11대 회장 선거에는 1193명이 점명해 1184명이 투표했다.

2011년은 첫 직선제 시행이라는 점, 2015년은 당시 열린비구니모임을 주도로 집행부 교체에 대한 여론이 형성된 시점이라는 점에서 많은 인원이 투표에 참여했지만 올해는 이보다 더 큰 유권자들의 기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실제 이번 선거에 후보로 나선 육문 스님과 본각 스님은 비구니스님들 사이에서도 각각 회장후보로 추대될 만큼 명망 있는 인물이다. 이처럼 영향력이 큰 스님들의 입후보와 열띤 선거운동으로 인해 양측 선거대책위원회가 예상한 투표 최대인원인 1500명을 훨씬 웃도는 인원이 전국비구니회관으로 발길을 옮긴 모양새다. 총 유권자인 6000여 비구니스님들의 3분의 1가량이 투표에 참여한 셈이다.

비구니회 관계자들도 "평소 적극적으로 움직이지 않던 은둔형 회원들도 이번 선거만큼은 관심 깊게 지켜본 것 같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제12대 회장으로 당선된 본각 스님도 이 같은 대중의 관심을 인식한 듯 당선소감을 통해 선거로 과열된 갈등을 뒤로 하고 한국불교 발전을 위해 모두가 힘을 쏟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본각 스님은 "짧은 선거기간이었지만 많은 일들이 벌어졌다. 그 기간에 저는 제 자신을 돌아보고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며 "우리 모두는 한 방울의 물이다. 전부 흘러서 강을 만들고 바다를 만드는 것처럼 우리는 넓은 법의 바다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본각 스님은 선거과정에서 한 스님으로부터 들은 경책을 전하면서 6천여 비구니가 화합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본각 스님은 "어느 스님이 선거 끝나면 내일은 중노릇 안 할 거냐고 경책하셨다. 우리는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중노릇을 해야 한다"며 "사람들이 말하기를 한국불교는 큰 목선이 좌초돼 썩어가고 있다고 한다. 한국불교가 썩어가는 배라면 우리는 빨리 새로운 반야용선을 만들어 타야한다.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해야 하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본각 스님은 또한 앞서 제시한 5대 공약의 실천을 위해 제도와 조직을 정비하는 한편, 법룡사를 중심으로 재정을 마련해 모든 비구니스님들의 사각지대를 예방하겠다는 포부도 전했다.

본각 스님은 "회장으로 당선됐지만 기쁘지 않다. 마음도 가볍지 않다. 우리는 혼자 계시는 노스님이나 사각지대에 계신 스님들을 다 살펴야 한다. 우리가 해야 한다"면서 "출가감소가 계속되는 이 시대에 어떻게 하면 젊은 여성이 비구니 삶의 매력을 느끼도록 할 것인지 고민하겠다. 제가 앞장 설 테니 모두 정은 잠시 내려놓고 법의 바다를 만드는 데 동참해달라"고 밝혔다.

이번 선거가 과열양상으로 치달아 비구니계가 양분될 수 있다는 우려에는 "비구니스님들은 선거가 끝나면 한마음으로 다시 모인다. 물론 저부터 다가가겠다"면서 "비구니스님들의 도움 없이 전국비구니회는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한다. 갈라졌던 마음을 하나로 모아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본각 스님에게 제기된 학력 의혹에 대해서는 "직접 호법부를 찾아가 소명할 계획이다. 1960년대 당시 지역별로 입학조건에 대한 차이가 있었고, 현재는 이를 증명해줄 분이 남아있지 않다"며 "대학도 아닌 초등학교, 중학교 학력이 큰 문제라고 보진 않는다. 모든 건 소상히 밝힐 것"이라고 답했다.



'걸작' 괘불을 만나다 17세기 후반의 걸작으로 평가되는 금당사 괘불(보물 제1266호)이 사부대중 앞에 모습을 드러냈다. 불교중앙박물관(관장 탄문)은 9월 19일 오후 3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로비에서 공개식을 열고 금당사 괘불을 특별 전시했다. 11월 30일까지 열리는 특별전 '도솔천에서 빛을 밝히다–모악산 금산사'의 일환으로 특별 공개된 금당사 괘불은 10월 10일까지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로비에 전시된다. 글 · 사진=빅재완 기자

'Z세대 포교' 박차, 첫 뉴미디어 영상공모

조계종 포교원 10월 13일까지 접수…총 상금 300만원

'디지털 네이티브'로 불리는 Z세대가 사회 커뮤니케이션의 주력세대로 떠오르는 가운데 이를 대상으로 한 불교계의 접근이 다각화 된다.

조계종 포교원(원장 지홍스님)이 '신행과 수행, 포교와 문화를 더하다'를 주제로 사상 처음으로 인스타그램 유튜브 영상공모전을 실시한다.

영상공모전은 Z세대 포교 콘텐츠 확보 차원에서 진행된다. 모바일 데이터분석 플랫폼인 앱애니에 따르면 2020년 Z세대가 미디어 소비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40%에 이른다. 이전세대보다 월평균 1.3배 더 뉴미디어에 접근하는 것이 특징이다.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와 대한불교청년회 공동으로 주최하는 이번 공모전은 이러한 뉴미디어 매체가 중요한 소통수단인 만큼 뉴미디어 포교 콘텐츠를 양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포교원은 지난해부터 웹툰 작가를 비롯한 뉴미디어 콘텐츠 제작자를 대상으로 템플스테이를 개최하고 올해 8월에는 불교SNS콘텐츠 발생을 지원하기 위한 프로젝트 공모전을 개최하기도 했다.

포교원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뉴미디어 환경에 전문성을 갖춘 스님과 불자 발굴에도 적극 나선다는 계획이다.

공모전에는 개인 및 팀 단위로 누구든 참여가 가능하다. 주제는 신행 또는 수행, 포교와 불교문화, 불교 청년과 대학생의 활동, 테마가 있는 불교 영상 등이다. 독립운동 사찰을 탐방한다던지, 청년들이 수행하는 활동의 영상 기록 등 모두 출품 가능하다. 여기에 영화, 연극, 광고, 댄스, 독백, 뮤직비디오, 인터뷰, 뉴스, 펜터마임, 플레시몹, 애니메이션 등 불교와 관련이 있으면 어떤 내용이든 가능하다.

출품작의 경우 영상의 길이는 인스타그램 60초, 유튜브 3분 이내여야 한다. 짧은 길이의 영상인 만큼 주제에 대한 참신한 접근법과 편집기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응모자는 개인 외에도 팀별로 참여 가능하다. 출품자당 최대 2가지 작품이 응모 가능하며 기존에 다른 공모전에 출품된 적이 없는 순수 창작물이어야 한다.

응모 기간은 2019년 9월 3일부터 10월 13일까지며, 이후 심사를 거쳐 11월 2일 당선작 발표 및 시상식을 가질 예정이다. 시상 내역은 대상 1명(100만 원), 최우수상 2명(각 50만 원), 우수상 5명(각 20만 원)이다. (02)2011-1903 노덕현 기자

진흥원, BBS불교방송 사장 후보 공모

본인 응모 · 타인 추천 가능
오는 10월 7~11일까지 접수

(재)대한불교진흥원은 BBS불교방송 측의 사장 후보 추천 요청에 따라 불교방송 제10대 사장 후보 공개모집을 실시한다고 9월 23일 밝혔다.

진흥원은 9월 16일자로 (재)불교방송으로부터 '불교방송 사장 후보 추천 요청' 공문이 접수됨에 따라 오는 9월 23일부터 공개모집을 통한 불교방송 사장 후보 추천 절차를 진행한다. 특히 이번 공개모집 응모에는 후보자 본인 지원 이외에도 추천을 통해 참여할 수 있도록 문호를 대폭 개방해 눈길을 끈다.

후보 자격 요건은 1958년 1월 1일 출생한 불자이며, 불교의 현대화 의지로 다양한 방송 프로그램 제작을 위한 인프라 구축과 비전 제시 역량을 갖고 사회적 신뢰도 제고와 불교방송 이미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인사이면 된다. 또한 진흥원은 방송의 경쟁 현황 및 전망에 대한 식견과 풍부한 경영 경험과 불교방송에 대한 사명감을 가진 인사를 선호한다고 덧붙였다.

제출서류는 이력서와 소개서, 경영계획서 등이다. 서류접수 기간은 10월 7일부터 11일까지이며, 제출은 대한불교진흥원 사무국으로 직접 방문 또는 우편으로 하면 된다. 한편 접수된 후보자에 대해서는 1차 서류심사와 2차 면접심사를 거쳐 이사회에서 최종 2명의 후보자를 선정한 후 (재)불교방송 이사회에 복수 추천할 계획이다. (02)719-2606, 719-1855 김주일 기자



범어사 개산대재 및 선문화교육센터
템플스테이관 개관기념 행사

개산 1341주년 개산대재 법요식
일 시 불기 2563(2019)년 10월 2일 수요일 오후 3시
장 소 범어사 대웅전

선문화교육센터 템플스테이관 개관식
일 시 불기 2563(2019)년 10월 2일 수요일 오후 4시 30분
장 소 범어사 선문화교육센터
1부 : 개관식 / 2부 : 문화공연

修心訣 수심결 특별 강좌
금정총림 범어사 방장 지 유 대종사
일 시 : 불기 2563(2019)년 10월 14일 (월) ~ 18일(금) 오후 2시
장 소 : 범어사 선문화교육센터 강당
접 수 : 선착순 500명 원주실 051)508-3636

문 의 | 종무소. 051)508-3122 원주실. 051)508-3636